

호남석유화학, 포트폴리오에서 제척

현대증권, 차익실현에 따른 교체 ... SKC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영향

현대증권이 3월24일 자사 랩어카운트 등의 운용기준으로 사용하는 4월 <ACE 포트폴리오>에서 동양제과, SKC, 호남석유화학을 제외했다.

현대증권은 동양제과가 기업지배 위험이 커졌고, SKC는 SK글로벌 분식회계의 영향권에 들었으며, 큰 폭의 차익을 실현한 호남석유화학은 교체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다.

대신 수익개선이 예상되는 LG화학과 PDP 양산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SDI를 새로 편입했고, 삼성전자의 투자비중을 줄이고 LG전자의 비중을 늘렸다.

또 현대증권은 전쟁 조기종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3년 상반기 중 예상보다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수익전망 악화, 북핵 문제 등을 감안해 주가전망치를 520-650p로 낮췄다.

현대증권은 하향조정된 주가전망치를 토대로 실적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며 보수적인 운용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3/31>